

임진강 탐방로 44년 만에 개방...다음 달부터 시범운영

[경인방송 - 구대서기자 kds@ifm.kr]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임진각~울곡습지공원 9.1Km 구간이 44년 만에 일반에 개방됩니다.

경기도와 파주시, 육군 1보병사단은 다음 달부터 3개월동안 '임진강 생태탐방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3개 기관은 시범운영에 앞서 그제(28일)부터 오늘까지 생태탐방로의 CCTV, 방송장비, 조명장비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을 마치면 토.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주중 1회를 개방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개방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14.4 X 6.7 cm

한국경제

임진강 생태탐방로 44년만에 개방

경기 파주시 임진각 일원 임진강변 생태탐방로가 44년 만에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개방 구간은 임진각~울곡습지공원 9.1km다.

경기도와 파주시, 육군 1보병사단은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임진강 생태탐방로를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 2회, 주 10회 시범 개방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개방 구간은 파주시 통일대교 남쪽 임진강변 지역으로 1971년부터 군사보안 문제로 민간인 출입을 금지한 곳이다. 지금까지는 관광객들이 임진각 망루에서 망원경을 이용해 경치를 구경했다. 시범 개방으로 관광객들은 걸으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구경할 수 있다.

의정부=윤상연기자

syyoon1111@hankyung.com

9.7 X 6.5 cm